

전북대, 청년 복지 위해 나와 '맞손'

청년매입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안정화 사업 협력 사회적경제·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동사업 발굴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이하 LH 전북본부)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1일 전북대 총장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임정수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안정화 된 복지 제공 등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 광범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LH 전북본부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 임대주택 등 학생 주거복지 안정화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전북대에서 LH 취업 및 주거복지 설명회를 개최해 전북대 학생들의 LH 취업을 지원하고, 저렴한 LH 청년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남호 총장은 "LH는 지역발전과 주거복지 사업은 물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서 그 어떤 기관보다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공공기

관 취업 및 청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다양한 공동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이하 LH 전북본부)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정수 LH전북본부장은 "전북대학교는 우수한 인력양성을 통해 전북발전에 기여해 온 유서 깊은 대학"이라며 "전북대 학생들의 취업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사육 별관에 입주해 있는 전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도 협력하여 지역대학생을 위한 다

양한 사회적경제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신입사원 250명에 대한 채용공고 후 합격자 발표를 준비 중인 LH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정원확대 등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가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학생 및 교직원 20명이 최근, 일주일 간 베트남 하노이, 박장, 남딘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주대, 학생·교직원 해외봉사 성료

한-베 연합 봉사단, 베트남에 사랑의 손길 전해

전주대 학생 및 교직원 20명이 최근, 일주일 간 베트남 하노이, 박장, 남딘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ICC Hami 봉사단과 함께 한-베 연합 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ICC 홍보대사인 베트남 국민가수 Tuan Hung(투언훙)과 함께 현지에서의 어려운 이웃 및 부족한 일손을 도울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성공적인 한-베 봉사활동 진행을 위해서 전주대와 ICC Hami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전주대·ICC Hami 봉사단 발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박장 사회복지센터에서 미니운동장 주변부 시멘트 포장 및 벽화 그리기, 건물 안 전기배선 재정비, 건물 밖 세면대 주변 가림막 설치, 미니 축구 골대 설치 등의 노력봉사와 장애우와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봉사단은 ICC Hami 신입생 150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본예절 교육과 김밥 만들기 체험 등 문화교류 활동도 진행했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베트남 현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재미까지 더했다.

특히 현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김밥 만들기 체험이었다.

한 현지 학생은 "김에 밥과 여러 재료를 말아 싸 먹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에서 봉사단은 남딘 직업교육센터에 재봉틀을 기증하여 장애 아동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센터 직원 및 장애 아동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인증받다

평가 주관 기관 전북대 방문해 이 총장에 인증패 전달 거점국립대 1위·국내 종합대 10위... 대학 경쟁력 입증

지난달 로이터와 글로벌 혁신데이터 분석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공동으로 뽑은 2018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지난 10일 오후 이에 대한 인증패를 받았다.

이날 인증패 전달식에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김진우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대학을 찾아 이남호 총장에게 혁신대학임을 인증하는 상패를 전달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학 중 첨단 과학연구를 이끌고 신기술 개발 성과가 가장 우수한 혁신적인 대학 75개를 선정할 이 평가에서 전북대는 국내 거점국립대 가운데 1위, 종합대학에선 10위에 랭크되며 경쟁력을 자랑했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화학약품과

반도체, 제약·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특허 출원 대비 등록률이 81%로 아시아 8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등록된 총 특허 출원 수에서도 아시아 33위에 랭크되며 전체적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또한 산업계 종사자들의 공저 논문 비율에서 아시아 38위에 올랐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이 아시아 혁신대학으로 선정된 데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민들의 성원, 그리고 정치권의 지원 등이 조화를 이뤘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대학만이 갖고 있고, 잘할 수 있으며,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브랜드화 해 가치를 높여간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로이터와 글로벌 혁신데이터 분석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공동으로 뽑은 2018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지난 10일 오후 이에 대한 인증패를 받았다.

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하루장터' 열어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연계된 '하루장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북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시간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활동 중에 만든 다양한 품목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하루장터'에는 도내 특수학교 9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3곳(군산, 김제, 고창), 특수교육 관련 대안학교·공공체·장애인부모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루장터는 오후 3시까지 펼쳐지며,

제과제빵류, 도자기류, 천연 비누류, 천연 염색류, 가죽공예, 방한제(디퓨저), 유기농 먹거리, 공예 물품 등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만든 50여종의 제품들이 전시·판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루장터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학교와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이고,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